

미국 남서부(Southwest)의 문화·지리적 이해 : 멕시코성과 국경성을 중심으로*

임상래(부산외대 스페인어과)**

- I. 들어가는 말
- II. 남서부의 형성: 극북(Far North)에서 남서부(Southwest)로
- III. 치카노의 땅, 남서부
 - III.1. 남서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III.2. 남서부 문화와 비동화: '멕스웨이'의 부활
- IV. 국경으로의 남서부
 - IV.1. 국경공동체의 성립
 - IV.2. 소통과 통합의 국경
- 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광대한 영토, 중층적인 인종 구성, 다양한 자연 조건 등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일괄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중 인문 지리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지역에서¹⁾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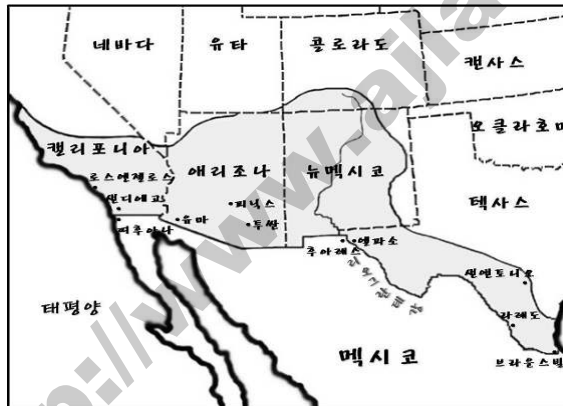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Sang-Rae L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panish & Latin American Studies, srlim@pufs.ac.kr), "The Culture and Geography in the Southwest: Mexicaness and Borderness".

1) 미국은 인구, 도시화, 산업화, 이동성, 자원, 문화 기원, 소득과 소비, 정치적 구분 등 인문 지리학적 기준에 따라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제조업 핵심지역(the American

서부(Southwest)는 문화, 인종, 정치, 생태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간주된다.

아래의 지도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남서부는 텍사스 주의 서부, 뉴멕시코 주,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의 남부, 콜로라도 주 남부 일부를 포함한다. 이곳은 사계절이 온난하며 미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고 매우 건조한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기후로 인해 이전에는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적절한 냉난방과 상하수 시설 덕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조하고 온난한 기후는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노약자나 은퇴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출처: Stephen S. Birdsall & John Florin(2004), 미국의 지리 (Outline of American Geography, 미국 국무부, 213)

Manufacturing Core), 동부 우회지역(the Bypassed East), 애팔래치아-오자크 고원 (Appalachia and the Ozarks), 최남부지역(the Deep South), 남부해안지역(the Southern Coastlands), 농업 핵심지역(the Agricultural Core), 대평원과 대초원(the Great Plains and Prairies), 내륙 불모지대(Empty Interior), 남서부 국경지역(the Southwest Border Area), 캘리포니아(California), 북태평양 연안(the North Pacific Coast), 북부지역(the Northlands), 하와이(Hawaii) 등 14개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Birdsall 2004). 또 북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 4개의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각 지역은 몇 개의 하부지역으로 세분하는데 서부는 남서부, 북서부, 내륙산간, 태평양연안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지역구분에 따르면 남서부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를 포함한다(이현송 2006, 195).

역사적으로 남서부는 1500년대 말부터 인디언과 스페인 문화가 주를 이루었고 1800년대 중반 미국으로 합병된 이후에는 앵글로 문화가 더해져 세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곳이다. 나바호, 호피, 파파고, 아파치, 푸에블로 등 여러 인디언 보호구역은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4개주가 만나는 포 코너스(Four Corners)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모든 최종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지만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선출된 부족위원회가 결정하는 제한적 자치제를 하고 있다. 도로, 의료,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많은 편이며 석탄 등의 광업과 전력산업이 개발되고 있으며, 카지노 등의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다.

<표 1> 히스패닉 인구 비율 상위 5개주(2006)

순위	주	비율(%)	히스패닉인구 / 총인구
1	뉴멕시코	44.7	874,125 / 1,954,599
2	캘리포니아	35.9	13,087,981 / 36,457,549
3	텍사스	35.6	8,379,992 / 23,507,783
4	애리조나	29.1	1,796,643 / 6,166,318
5	네바다	24.2	605,059 / 2,495,529
	미국 평균	14.8	44,298,975 / 299,398,485

출처: Pew Hispanic Center,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Hispanic Population by State 2006 (<http://pewhispanic.org/factsheets/factsheet.php?FactsheetID=35,2008/8>)

<표 1>에서처럼 남서부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히스패닉 인구가 많아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한 선출직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남서부의 엘파소나 산타페와 같은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이곳이 ‘아메리카’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멕시코’적인 것들과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어도비(adobe) 양식과 파란 타일로 장식된 오래된 건물들, 사방으로 열려진 중앙 광장, 스페인어로

2) 인구수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애리조나 순으로 히스패닉이 많다.

된 간판과 표지판들, 멕시코풍의 음식과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이곳의 문화전경(cultural landscapes)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문화지역(cultural area, 또는 문화영역)은 이러한 삶의 흔적, 즉 문화전경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임덕순 1992, 68).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서부는 하나의 고유한 문화지역이다. 남서부가 보지(保持)하는 고유의 역사, 생활양식, 건축, 언어적 형상으로 인해 이곳은 멕시코와 히스패닉적 문화 경관으로 구분되는 문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남서부는 '남'과 '서'를 합친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넘어 전통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서부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멕시코적인 것(mexicaness)이 두드러지는 멕시코성³⁾의 현장이다. 또 남서부는 경계의 공간이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특징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국경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한다. 따라서 남서부는 양국의 물자와 인간이 구분되지만 동시에 소통하는 국경성(borderness)을 갖는 땅이다.

‘태양’과 ‘사막’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미국’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인종과 다문화가 병존하는 남서부는 분명 미국 내에서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남서부의 지역성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남서부의 역사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와 인종의 형성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오늘날 남서부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양태의 지역성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남서부의 역동성이 멕시코성과 국경성에 있다는 전체를 논증함으로서 이 지역을 실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멕시코성(lo mexicano, mexicanidad, mexicanity, mexicaness, mexicanness)은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 멕시코의 정체성으로서의 혼혈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디에고 리베라나 프리다 칼로와 같이 멕시코 문화를 숭상하는 예술적 멕시코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멕시코의 남성다움을 뜻하기도 한다. 멕시코 이민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멕시코 이민자와 그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치카노(chicano, 멕시코계 미국인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의 정체성의 중요 부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카노 전통이나 민속의 중요한 부분을 지칭하기도 한다(Castro 2001, 156).

II. 남서부의 형성: 극북(Far North)에서 남서부(Southwest)로

남서부 최초의 주인은 아메리카 인디언⁴⁾이었다. 1500년경, 지금의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 지방에는 약 762,000명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특히 뉴멕시코 북부의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주변에 많은 인디언이 거주했는데 이중 가장 조직화되었던 그룹은 푸에블로 부족(pueblos)이었다. 이들은 아나사지(Anasazi), 모골론(Mogollon), 호호캄(Hohokam) 등에 살았던 인디언의 후손이었다. 이들은 멕시코 중부의 원주민 문명보다는 수준이 낮았지만 나름의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각 부족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를 담당하는 샤만을 가지고 있었고, 주로 모계중심 사회 구조였으며, 종교집회와 제례의식을 빈번하게 행하였다(De León 2006, 4-5). 이들은 주로 사냥과 채집생활을 하였고, 때때로 교역을 위해 조개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오그란데 강과 같이 물의 공급이 원활한 곳에서는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는 무리도 있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스페인은 북미 지역까지 탐험하였다. 1513년 폰세 데 레온(Juan Ponce de León)이 플로리다를, 데 소토(Hernando de Soto)는 1538-1541년 남동부지역을 탐험하고 미시시피 강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Francisco Vázquez de Coronado)는 1540-42년 뉴멕시코와 남서부지역을 탐험하였고 로드리게스 카브리요(Juan Rodríguez Cabrillo)는 1542년 오늘날의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을 탐사하였다. 1559년에는 스페인은 플로리다의 펜사콜라(Pensacola)에 미국 최초의 백인 정착촌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남서부에 대한 스페인의 이해와 관심은 적었다. 왜냐면 이 지역은 멕시코 중앙과 너무 멀었고, 금과 같은 귀금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사막지대이어서 외부와의 교통도 불편하였다. 또 스페인은 원주민을 개종시켜 신민으로 만드는 식민정책에 따라 원주민 인구가 많은 멕시코 중남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

4)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원주민은 인디오(indios)로, 남서부를 포함하는 북미지역의 원주민은 인디언(indians)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라서 오늘날의 남서부를 포함하는 멕시코 북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Far North), 즉 ‘극북’지역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1700년까지 정착촌이래야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엘파소(El Paso), 산타페(Santa Fe), 타오스(Taos), 앨버커키(Albuquerque)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카미노 레알’(camino real, 즉 ‘왕국의 길’이란 뜻)로 불렸던 멕시코시티-엘파소-산타페의 교역로 주변으로 약간의 식민촌이 있을 정도였다(De León 2006, 10).

텍사스에서는 동부의 내커도치스(Nacogdoches)에 선교촌이 1716년 건설되었고 샌안토니오(San Antonio)는 1718년에 건설되었다. 서부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관심과 식민은 더 늦게 시작되었다. 1769년 가스파르 데 포르톨라(Gaspar de Portola)는 샌디에고 요새촌을 세웠고 이어서 샌디에고 데 알칼라(San Diego de Alcalá) 선교 마을을 건설하여 스페인의 식민이 시작되었다. 이주자에게는 목축과 경작을 위한 토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식민은 대부분 태평양 해안지역에 한정되었다. 로스앤젤레스는 1781년 건설되었고 1822년 멕시코 령에 편입되었고, 1835년에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되었다(Birdsall 2005, 276).

스페인은 원주민을 ‘Gente sin razón(이성이 없는 사람)’, 즉 미개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스페인은 이들을 개화(즉 개종)시키고 또 식민지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극북지역에서 미션, 프리시디오, 푸에블로, 란초 등 네 가지 식민제도를 시행했다. 스페인어로 선교를 의미하는 미션(misión)은 일종의 선교 정착촌이었고, 요새를 의미하는 프리시디오(presidio)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였고, 마을을 의미하는 푸에블로(pueblo, 또는 villa)는 정착민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었고, 란초(rancho)는 목장(농장)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남서부 대부분의 도시의 기원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남서부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 것은 미국이 남서부로 국경을 확대하면서부터이다. 특히 텍사스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멕시코가 독립하자 미국은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대한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멕시코는 이를 거부하였다. 1800년대 들어 미국인의 텍사스 이주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점점

더 미국화 되었다. 결국 1836년 텍사스의 미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멕시코가 알라모 요새를 점령하여 곧 진압되었다. 그러나 텍사스군의 재반격으로 멕시코군은 퇴각하였고 텍사스공화국은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의 합병을 원하였으나 미국 내 찬반 여론으로 미루어지다가 1845년 미국 정부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텍사스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846년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1848년 멕시코와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을 체결하여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를 획득하였다. 1853년 미국 공사 제임스 개즈던(James Gadsden)이 멕시코 북부 영토를 매입하는 협상을 시작하여 이듬해 양국이 이에 합의하였다. 이 매입으로 오늘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주 남부에 해당하는, 멕시코 북부의 약 78,000km²에 이르는 영토가 미국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국경은 확정되었고 남서부의 영유권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848년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새크라멘토 강에서 시작된 골드러시는 서부에 광산개발 붐을 일으켰다.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은 광물을 수송하고, 물자를 교역하는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이 발달하였다. 1869년 샌프란시스코-오마하(네브래스카주)를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가 건설되어 백인의 서부 이주가 본격화되어 이 지역은 더 발전하였다(이현송 2006, 232-234).

그러나 서부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2차 대전 이후였다. 미국-멕시코전쟁으로 남서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서부의 항구 도시는 그 지정학적 전략성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배후지인 남서부의 내륙 도시도 함께 성장하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로스앤젤로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등에 해군 기지가 들어섰고 델러스, 샌 안토니오, 엘파소, 덴버, 콜로라도 스프링스, 피닉스, 투산, 로스 알라모스, 앨버커키 등 남서부의 내륙 도시에 대규모의 군사기지와 군사산업이 들어서 도시 발전을

크게 앞당겼다. 특히 피닉스와 투산은 기후적 장점으로 인해 항공 산업이 발전하였고 애리조나는 최근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이현송 2006, 236; Birdsall 2004, 219). 텍사스에는 석유, 가스, 유전개발, 석유화학, 항공우주 등의 중화학과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고 주도인 오스틴은 통신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남서부는 멕시코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미국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Ⅲ. 치카노의 땅, 남서부

Ⅲ.1. 남서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이른바 히스패닉 파워는 이제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히스패닉은 백인 다음의 최대인종이며 그 수치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1970년 960만 명이었던 히스패닉 인구는 현재 4,500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매 10년마다 50% 이상씩 증가했고 지난 35년 사이 거의 5배가 늘어났다. 히스패닉의 인구 증가율은 백인보다 훨씬 높으며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새로운 이민자도 계속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표 2>처럼 2050년이 되면 미국 사람 4명중 1명이 히스패닉이 될 것이며 따라서 숫자로만 따진다면 히스패닉계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표 2> 히스패닉 인구 변화(백만 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6	2050(추정)
인구(증가율)	9.6	14.6(52%)	22.4(53%)	35.3(57%)	44.3(26%)	102.6
총인구대비율	4.7	6.4	9.0	12.5	14.8	24.4

출처: Pew Hispanic Center,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2006: Population by Race and Ethnicity: 2000 and 2006 ([http://pewhispanic.org/files/factsheets/hispanics2006/](http://pewhispanic.org/files/factsheets/hispanics2006/Table-1.pdf) Table-1.pdf, 2008/9), U.S. Census Bureau, Hispanic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70 to 2050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hispanic/files/Projections.xls>, 2008/9)

히스패닉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주 등에 많고 그 비율을 보면 뉴멕시코 주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는 셋 중 한 명 이상이 히스패닉이다. 도시로는 L.A,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순으로 히스패닉 인구가 많으며 샌디에고(25.4%)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요 국경 도시(라레이도 94%, 엘파소 77%, 유마 46%, 맥알렌 80%)에서 히스패닉 인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 남서부는 인구 규모와 비율에서 히스패닉이 다수를 차지하며 따라서 이들이 정치와 경제뿐만 일상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기준 미국 전체 히스패닉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멕시코(65.9%), 푸에르토리코(9.5%), 쿠바(4%) 순으로 멕시코 출신이 전체 히스패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Hispanic Americans 2007).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푸에르토리코 계는 뉴욕에, 쿠바 출신은 플로리다, 멕시코 출신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많이 모여 산다. <표 3>은 남서부의 주요 경제 사회 지표를 보여주는데, 남서부 4개 주에는 히스패닉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중 멕시코 출신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서부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남서부는 젊은 멕시코 이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율과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다. 멕시코 이민인구가 사회의 하위 계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남서부의 연평균 소득은 미국 평균보다

낮으며 따라서 빈곤인구율도 높은 편이다.

<표 3> 남서부 주요 사회경제지표

구 분	미국(평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히스패닉비율(% , 2006)	14.8	35.9	29.1	44.7	35.6
멕시코계인구비율(% , 2000)	7.3	25.0	20.8	18.1	24.3
인구증가율(% , 2000-2006)	6.4	7.6	20.2	7.5	12.7
18세이하인구비율(% , 2006)	24.6	26.1	26.4	26.0	27.6
가정내비영여사용율(% , 2000)	17.9	39.5	25.9	36.5	31.2
일인당연평균수입(\$, 1999)	21,587	22,711	20,275	17,261	19,617
빈곤인구율(% , 2004)	12.7	13.2	14.6	16.7	16.2

출처: U.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00000.htm> 2008/9)

기실 남서부에 히스패닉과 멕시코 이민이 많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국-멕시코 전쟁이 끝난 후, 남서부의 멕시코 출신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로, 당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계 인구는 전체인구의 10%정도였다. 남서부에 멕시코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1900-1990년 동안 약 300만 명의 멕시코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주하였고 이중 다수가 남서부에 정착하였다(Birdsall 2005, 277). 여기에 불법 월경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현재 남서부 인구의 4명중 1명이 멕시코계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전체 멕시코 이민자 10명중 7명이 남서부에 살고 있다. 즉 멕시코 이민은 남서부에 집중하여 거주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멕시코 이민의 남서부 행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남서부의 멕시코화는 더 강화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서부는 치카노에게 깊은 역사적 연관이 있는 곳이다.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이곳의 멕시코 인들은 ‘미국이 된 멕시코’에 남아서 멕시코-아메리칸이 되었다. 이

들은 “국경을 넘어서가 아니라 국경이 그들을 넘어(We never crossed a border. The border crossed us.)” 미국인이 되었다(Nova 1988, 52). 따라서 이들 오래된(old) 이민자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오는 새로운(new) 이민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남서부는 남의 땅이 아니다. 그래서 남서부는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치카노의 ‘본향(homeland)’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남서부 멕시코계 인구 현황

구 분	멕시코계인구 /총인구(천명)		멕시코계인구 /미국멕시코계인구(천명)	
	1990	2000	1990	2000
캘리포니아	6.119/29.760 (20.5%)	8.456/33.872 (25%)	6.119/13.496 (45.3%)	8.456/20.640 (40.9%)
애리조나	616/3.665 (16.8%)	1.065/5.130 (20.8%)	616/13.496 (4.6%)	1.065/20.640 (5.1%)
뉴멕시코	329/1.515 (21.6%)	330/1.819 (18.1%)	329/13.496 (2.4%)	330/20.640 (1.6%)
텍사스	3.891/16.986 (22.9%)	5.072/20.852 (24.3%)	3.891/13.496 (28.8%)	5.072/20.640 (24.6%)
소 계	10.952/51.926 (21.1%)	14.923/61.403 (24.3%)	10.952/13.496 (81.1%)	14.923/20.640 (72.3%)
미국전체	13.496/248.709 (5.4%)	20.640/281.421 (7.3%)	13.496/13.496	20.640/20.640

출처: U.S. Census Bureau, American Factfinder
 (<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BasicFactsServlet>, 2003/4)

III.2. 남서부 문화와 비동화: ‘멕스웨이’의 부활

남서부에는 최초 인디언이 살았고, 이후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하였고 마지막으로 앵글로인들이 이주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남서부 문화에는 아메리카 인디언, 스페인 식민 문화, 동부의 앵글로 문화의 요소가 혼재된 삼문화적(tricultural)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중 인디언 문화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한적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인구적으로 소수이며 넓은 지역에 산재해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동화되지 않은 인종그룹이다. 따라서 남서부에서 인디언 문화와 삶의 양식은 가장 척박한 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만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스페인이 남서부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스페인 문화와 유럽과 원주민의 혼합인 메스티소 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800년대 들어 앵글로계 백인의 정착이 늘어나면서 두 문화가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남서부가 미국 영토가 된 후 앵글로 문화와 멕시코 문화가 남서부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삶과 정신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문화나 영어보다는 오히려 멕시코의 전통이나 스페인어와 더 밀착되어 있다. 특히 국경에서 떨어진 배후지역보다는 엘파소나 라 레이도 등의 남서부 국경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artinez의 ‘통국경지역(transborder metropolises)’이라는 개념은 타당성을 갖는다(Martinez 1994, 41). 그는 양국의 국경 지대를 핵심국경(core borderlands, 미국의 49개의 카운티와 멕시코의 36개 무니시피오)과 광대국경(greater borderlands, 미국의 4개주와 멕시코의 6개주)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국경선에 붙어 있는 양국의 핵심국경은 ‘또 다른 멕시코’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남서부의 ‘멕시코성’은 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자가 이민국 사회에 동화되려면 이민자 집단이 다양해야 하고 또 많은 지역에 분산되어 살아야 한다. 국적이 다른 여러 이민자집단이 있다면 소통을 위해 이민국의 공용어를 더 빨리 배우게 되며 분산되어 서로 떨어져 살면 내국인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산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언어, 습관, 원칙을 유지하며 따라서 미국 사회에 동화가 느리다(헌팅턴 2004, 240). 멕시코 이민의 남서부 집중은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남서부가 문화적으로 ‘미국 내의 멕시코’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남서부에는 ‘호세’가 ‘마이클’보다 더 많이 태어나며 미국으로 오려는 멕시코인은 증가일로에 있다. 또 남서부도 멕시코 이민자를 원하고 있다. 남서부 경제는 이들의 저임금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불법월경자를 포함한 멕시코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남서부에서 멕시코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멕시코 이민자 공동체와 치카노를 상대로 한 히스패닉 마켓이 공고화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이민자에게 문화적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동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히스패닉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남서부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백인 지배 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적어지게 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미국의 남서부가 언젠가는 캐나다의 퀘벡처럼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혹은 텍사스가 멕시코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남서부도 또 다른 나라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⁵⁾ 헌팅턴의 말처럼, 양국의 국경은 녹는 중이고, 흐려지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그래서 미국-멕시코 국경선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다(헌팅턴 2004, 303).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남서부는 멕시코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herida abierta)’라고 얘기하였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멕시코 사람은 없지만 이미 멕시코는 전쟁 없이 문화로서 그 땅을 되찾고 있다(Ramos 2005, 235). 이런 측면에서 남서부, 특히 남서부의 핵심국경지역은 이미 문화적으로 ‘맥스웨이(Mexway)’를 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5) 양국 국경의 연관성과 긴밀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Mexamerica, Amexica, Mexifonia를 넘어 뉴멕시코대학교 역사학과와 Charles Truxillo 교수처럼 멕시코 북부와 남서부가 합쳐진 ‘북부공화국(República del Norte)’이 탄생할 것이라고 구체적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이 새로운 히스패닉 국가는 늦어도 2080년경에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outhwest shall secede from U.S. prof. predicts,” The Albuquerque Tribune(2000/1/13), http://web.abqtrib.com/archives/news/013100_trux.shtml 2009/1).

IV. 국경으로의 남서부

IV.1. 국경공동체의 성립

미국-멕시코 국경의 총 길이는 3,141km로 미국의 남서부를 이루는 4개 주(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와 멕시코의 6개 주(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ón, Tamaulipas)에 걸쳐있다. 미국의 엘파소와 멕시코의 시우달 후아레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멕시코 만까지 리오그란데 강이, 서쪽으로는 태평양까지 광대한 평원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만큼 지구상에서 특별한 경우는 드물다. 이 국경은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구분일 뿐만 아니라 두 문화, 두 세계, 두 경제가 나뉘지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 국경은 앵글로색슨 문화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경계인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갈라지는 곳이다. 또 미국-멕시코 국경은 세계의 어느 국경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경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국경은 매우 역동적인 흐름의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역동적인 관계는 오랜 국경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양국 국경의 형성 과정은 독수리 대 뱀(Eagle and Serpent)의 ‘한 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영토를 더 서쪽으로, 그리고 더 남쪽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곧 멕시코 북방 영토에 대한 공격이었기에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서부를 개척하면서 아메리카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독수리 국가 미국과 ‘깃털달린 뱀’의 형상을 한 께살코아틀(Quetzalcoatl)신의 후예 간의 국경 충돌은 지키던지 아니면 빼앗기는 승패의 역사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초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획득하고, 당시 멕시코 북부로 오는 미국인 상인, 염탐꾼, 정착민, 방문자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30년대 미국인들은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점점 더 많이 모여 들었고 이들은 남서부와 미 동부를 잇는 교역로를 개설하였다. 이는 인접한 타마울리파스, 누에보레온, 치와와 지역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멕시코 전쟁의 결과로 남서부가 미국 영토가 된 이후 이곳은 미국 경제에 편입되어 광산물, 소고기, 곡식, 노동력을 제공하였다(Martinez 1994, 33).

국경 확정 이후 양국 간에 큰 국경 분쟁은 없었지만 인디언의 반란이나 소도둑, 총잡이들, 유토피아를 찾는 일부 교도나 은둔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빈번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국경지역에서 치안이 확보되어 범법행위가 크게 줄어들었고, 국경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1910년경, 멕시코 국경과 남서부는 마치 하나의 경제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미국과 멕시코에 철도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지역의 교통도 더 원활해졌다. 이에 따라 국경 경제도 더 활발해졌고 특히 미국 자본의 멕시코 북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특히 멕시코의 디아스(Porfirio Díaz)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멕시코 국경 지역의 철도, 광산, 농목업 등에 많은 미국 자본이 투자되었다. 미국 광업회사는 금, 은 등 귀금속 생산에 주력했지만 그보다는 뉴멕시코, 애리조나, 소노라에서 구리가 많이 생산되었다. 여기서 생산된 구리는 미국의 전기화(electrification)에 크게 기여하였다(Martinez 1994, 36).

남서부가 발전하게 되자 양국 국경의 상호의존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남서부의 농업은 멕시코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했다. 남서부의 농업은 자본의 투입과 관개시설의 확대로 20세기 초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캘리포니아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1900-1920년 사이 오렌지 생산은 4배, 레몬 생산은 5배가 늘었고 1차 대전 중 미국의 식품 생산의 1/3을 캘리포니아가 담당하였다.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이는 주로 멕시코 국경지방에 온 노동자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양국의 국경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인구의 이동도 많아졌다. 멕시코인의 미국 이민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미국인들은 멕

시코 진출도 확대되었다(Martinez 1994, 35). 그러나 1910년대에는 멕시코혁명과 반미주의의 전파로 국경 지역에 불안정과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1916년 판초 비야가 뉴멕시코의 조그만 국경도시 콜럼버스(Columbus)를 침공하여 한때 양국 간에 전쟁 발발의 위기가 있기도 했다.

국경의 상호의존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금주법(1920-1933)이었다. 미국 정부는 1차 대전 전후 국가적 단합을 도모하고 사회적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금주법을 제정했는데 그러나 ‘술 마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가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다. 방문자와 관광객으로 국경은 더 북적이게 되었고 양국의 쌍둥이 도시⁶⁾간의 협력과 공생(symbiosis)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2차 대전은 양국 국경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남서부 여러 도시에 신무기를 개발하는 국방 연구시설과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생산은 증대되고, 도로와 상하수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도시 규모와 인구가 확대되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켰고 미국 경제의 중심축은 스노우벨트(snowbelt,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미국의 북부 산업지대)에서 남서부의 선벨트(sunbelt)로 이동되었다. 남서부는 이전의 농목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Martinez 1994, 38).

또 멕시코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국경지역의 경제도 견실하게 성장하였다. 남서부가 발전함에 따라 그곳에서의 일거리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멕시코 내륙에서 국경지역으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라 프론테라’(la frontera, 스페인어로 국경을 의미함)는 멕시코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의 현장이었다. 남서부의 인구가 늘어나서 멕시코 국경 도시를 방문하는 미국인 관광객도 크게 증가하였고 국경 양쪽에서는 관광업과 도소매업이 호황을 누렸다.

6) Twin Cities. 티후아나-샌디에고와 시우닷 후아레스-엘파소와 같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도시들을 의미하며 대안(對眼)도시라고도 한다.

1942년 개시된 브라세로(braceros, 스페인어로 일급노동자를 의미함) 프로그램은 국경의 ‘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정책은 미국과 멕시코가 맺은 일종의 노동 계약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노동자는 한시적으로 미국 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64년까지 지속되었다.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미국, 특히 남서부에 남았고 나중에 이들 중 다수는 사면법의 시행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였다. 또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도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왜냐하면 멕시코 국경 도시는 브라세로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었지만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미국에 가지 못한 브라세로가 국경 도시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Lorey 2001, 108-109).

브라세로 프로그램 이후 1965년 새로운 국경 발전 계획이 시행되었다. 국경산업화정책(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은 외국기업이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멕시코 국경 도시에 일종의 조립공장인 마킬라도라(maquiladora)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외국기업은 면세로 원자재와 시설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 조립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해야 했지만 1989년 생산된 제품의 50%까지를 멕시코에 판매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처음 마킬라도라는 국경으로부터 20km(8마일)이내에 설립해야 했지만 나중에는 멕시코시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기업은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멕시코는 고용을 얻을 수 있었다. 마킬라도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높은 성장을 이룩했고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임금이 싸지면서 더 확대되었다. 1992년 약 2000개의 마킬라도라가 약 50만 명을 고용하였으나 2000년에는 공장은 3655개로 늘어났고 고용은 130만으로 증가했다(Birdsall 2005, 281; Martinez 1994, 39). 이제 마킬라도라는 국경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킬라도라 산업이 국경경제의 상호의존은 강화했다면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국경 공동체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경경제는 미국의 자본/기술과 멕시코의 노동을 결합하는 자유 무역을 바탕으로 초기적이고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IV.2. 소통과 통합의 국경

남서부가 미국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것은 그곳의 인종·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경제적 역동성 때문이며 이 역동성은 양국의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 통합, 공유의 관계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의 소통은 아침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샌디에고-티후아나, 엘파소-후아레스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 국경을 넘는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이나 건설현장의 일터로 향하며 마킬라도라의 미국인 경영진은 반대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출근한다. 국경의 이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후아레스의 청소년들은 등교시간에 맞춰 엘파소 행 버스에 오른다. 평일 낮이나 휴일에는 멕시코 주부들이 생필품 할인 매장인 '1달러 스토어'에서 쇼핑을 한다. 국경은 대중매체도 공유한다. 샌디에고의 라디오나 TV에서는 미국에서 제작된 스페인어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멕시코 방송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스페인어 신문도 영어 신문 못지않게 많이 팔린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스페인어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불리는 엘파소나 라 레이도의 다운타운에서는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또 양국의 국경도시들은 같은 물, 같은 공기를 마신다. 통관을 기다리는 멕시코 트럭의 배기가스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골칫거리이다. 국경 교통의 요지인 엘파소가 미국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가 된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리오그란데 강물이 오염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 용수와 대기 오염은 양국의 중요 현안이다(Lorey 1999, 158-159).

이처럼 양국의 국경지역은 노동, 쇼핑, 교육, 관광 등의 일상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 공기, 동식물 등 자연계까지도 공유한다. 그러나 가장 긴밀한 수준의 소통은 국경경제의 구조에서 나타난다.

국경의 경제는 양국 국경도시간의 교환과 소통을 전제로 작동한다. 미국 기업이나 공장은 거의 전적으로 멕시코 노동력에 의존하며, 주로 농·광업제품, 경공업제품, 수공업품 등을 수입한다. 미국 국경도시의 도소매업에서 가장 큰 고객은 멕시코 쇼핑객이며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멕시코 부유층의 예금고는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경도시에서 멕시코인의 주택 구입과 부동산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쇼핑센터, 호텔, 식당, 자동차판매점, 농장 등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멕시코 기업도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관광, 방문, 쇼핑 등의 목적으로 멕시코로 입국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은 멕시코 국경도시의 고용과 수입의 주요 원천이다 (Lorey 2001, 111).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불법거래와 밀수도 국경의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엘파소-후아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따리장수’를 포함한 밀거래가 매우 성하며 멕시코에서는 이를 국경경제의 ‘당연사’로 받아들인다.

이제 국경 경제는 상호의존과 소통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 멕시코 정부가 추진한 관세 인하와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의 정책으로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는 양국 경제의 공생 관계를 공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그 현장은 국경이었다. 미국의 자본과 멕시코의 노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국가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NAFTA는 국경경제를 고도의 ‘상호의존’에서 초기적 형태의 ‘통합’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이 양쪽에게 혜택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불평등 관계는 바꾸지 못했다. 국경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은 여전히 멕시코보다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국경경제는 이전의 ‘불균형적 상호의존’에서 ‘불균형적 통합’으로 변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Martinez 1994, 40).

이와 함께 양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gap)는 국경의 소통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의 근원임을 이해해야 한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국경 경제는 양국의 격차에 따라 작동되어 왔다. 임금의 경우는 이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오래전부터 멕시코 노동자는 남서부 농업의 주된 노동력이었으며 브라세로 정책,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북미자유무역협정도 모두 양국 간의 노동력과 임금의 차이를 전제로 구상된 것이었다. 노동과 자본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여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은 결국 양국이 가진 노동과 자본의 차이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차이는 쇼핑과 같은 매일의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 싸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흐름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예로, TV나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미국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연말 세일이 시작되면 샌디에고의 쇼핑몰은 국경을 넘어온 멕시코 자동차로 만원이 된다. 반대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에 약을 구입하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후아레스를 찾는 미국인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엘파소의 전화번호부에는 후아레스의 병원 안내 광고가 가득하다.

매일 국경을 넘어 북으로 가는 멕시코 노동자와 남으로 향하는 미국인 관리자는 국경경제 통합의 상징이다. 북미를 경제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보자는 북미자유무역이 가장 적극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이 미국-멕시코 국경이다. 이처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서부는 국경 경제 공동체의 중심이며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역동성은 미국 내에서 남서부를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V. 맺는 말

남서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인종적으로 매우 독특한 곳이다. 남서부의 선주민(先住民)이었던 인디언은 스페인, 멕시코, 미국의 지배를 겪으면서 소수가 되었고 현재 그들의 삶의 양식은 가장 척박한 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만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남서부의 문화를 지배한 것은 스페인과 멕시코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곳이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동부의 앵글로 문화가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남서부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WASP’의 미국적 가치와 전통보다는 멕시코 문화와 스페인어이다. 특히 멕시코에 접해 있는 남서부 국경도시는 ‘미국속의 멕시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서부는 아메리카 인디언, 스페인 식민 문화, 멕시코의 메스티소, 동부의 앵글로 문화가 혼재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멕시코적’인 문화와 인종이 두드러지는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남서부는 미국의 문화 지도를 기름지게 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남서부는 국경으로서의 관계, 즉 국경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는 개인과 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의존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충돌과 대립의 양태도 나타난다. 최근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규제와 국경경비의 강화 문제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 국경의 국경성에서 주목할 것은 이곳이 소통, 이동, 교환, 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고유의 역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국경지역에서는 물, 공기, 동식물까지도 교환되고 순환된다. 또 더 좋은 물건을 쇼핑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멋진 곳을 관광하기 위해 국경에서는 끊임없는 이동이 일어난다. ‘경제’에서는 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투자는 물론이고 마킬라도라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멕시코 노동과 미국 자본의 통합기제는 이미 초국가적으로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남서부이다. 따라서 남서부는 역동적인 국경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공간이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Abstract

El presente tiene como objetivo principal analizar la característica de Suroeste de Estados Unidos (Southwest), enfocando a lo mexicano (mexicaness) y a lo fronterizo (borderness) de esa región.

Como se sabe, el area 'Southwest' se consta de los 5 estados de Texas, New Mexico, Arizona, California y (una parte sureña de) Colorado y se constituye en la frontera con México. Por lo tanto, esta región es el lugar donde se lleva a cabo el intercambio de las personas y los bienes entre los dos países, lo que provee el dinamismo a esta región fronteriza.

Por otra parte, se puede decir que esta region es muy 'hispanic' y mexicanoamericana. En nuestros días, la población de origen hispano representa 45 porciento de la de New Mexico; en California, la proporción es 36 porciento; en Texas, 36 porciento; en Arizona, 29 porciento. De ellos, más de 65 porciento de la población hispana es mexicanoamericana. Entonces en el area 'Southwest', la esfera cultural de los mexicanos y los mexicanoamericanos sigue siendo dominante y poderosa.

Por tal motivo podemos afirmar que el area 'Southwest' se puede considerar una de las regiones más peculiares de los EE. UU. por su origen mexicano y el dinamismo fronterizo.

Key Words: Mexicanamericans, Chicanos, Hispanic, Southwest, Border / 멕시코계 미국인, 치카노, 히스패닉, 남서부, 국경

논문투고일자: 2009. 01. 16

심사완료일자: 2009. 01. 30

게재확정일자: 2009. 02. 10

참고문헌

- 새뮤얼 헌팅턴(2004),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형선호 역), 김영사.
- 이현송(2006), 『미국문화의 기초』, 한울아카데미.
- 임덕순(1992), 『문화지리학』, 법문사.
- 존 H. 엘리엇 외(2003), 『히스패닉 세계』, (김원중 외 옮김), 새물결.
- Birdsall, Stephen S. & John Florin(2004), 『미국의 지리』, (Outline of American Geography, 이경식 역), 미국 국무부.
- Birdsall, Stephen S. et al.(2005), *Regional Landscap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nh Wiley & Sons, Inc., pp. 276-281.
- Castro, Rafaela(2001), *Chicano Folklore*, Oxford University Press.
- De León, Arnoldo & Richard Griswold(2006), *North To Aztalan A History of Mexican American in the United States*, Harlan Davison Inc.
- Hispanic Americans: *A Statistical Sourcebook*, Information Publications, 2007.
- Lorey, David E.(1999), *The U.S.-Mexican Border in the Twentieth Century*, Scholarly Resources Inc.
- _____ (2001), “The Consequence of Rapid Growth in the Border Region: Social and Cultural Change Since the 1940s,” in David Bixler Márquez, et al., *Chicano Studies Survey and Analysis*,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pp. 108-111.
- Martínez, Oscar J.(1994), *Border People Life and Society in the U.S.-Mexico Borderland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Nova, Himilce(1988),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atino History*, New York: Penguin Putnam.
- Ramos, Jorge(2005), *La ola latina*,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Southwest Shall Secede from U.S. Prof. Predicts,” *The Albuquerque Tribune*(2000/1/13), http://web.abqtrib.com/archives/news/013100_trux.shtml
2008.12

Pew Hispanic Center,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2006, Population by Race and Ethnicity: 2000 and 2006, <http://pewhispanic.org/files/factsheets/hispanics2006/Table-1.pdf>, 2008/9

Pew Hispanic Center,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Hispanic Population by State 2006, <http://pewhispanic.org/factsheets/factsheet.php?FactsheetID=35>, 2008/8

U.S. Census Bureau, American Factfinder, <http://factfinder.census.gov/servlet/BasicFactsServlet>, 2003/4

U.S. Census Bureau, Hispanic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1970 to 2050,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hispanic/files/Projections.xls>, 2008/9

U.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00000.htm> 2008/9

<http://www.alas.org>